열린교육연구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19. Vol. 27, No. 2 pp 243~258
DOI : http://dx.doi.org/10.18230/tjye.2019.27.2.243

학교급과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부모의 교사 신뢰 차이*

박화춘** · 김대현*** · 최류미****

요 약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의 전인교육과 학업성취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과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다. 현재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443명의 학부모가 유용한 자료를 제공했다. 기술통계, 독립 t-검정, 일원 분산 분석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과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일반학교보다는 혁신학교 학부모일수록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향후 학교급과 혁신학교에서의 학부모-교사 신뢰에 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학교 변인, 학교급, 혁신학교, 학교 특성과 신뢰

Ⅰ. 서 론

신뢰는 자연 속의 공기에 비유되곤 한다(김우택, 김지희, 2002; 유길한, 2008).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조금만 탁해져도 인간을 숨 막히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적 관계와 조직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나 경계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지역사회 주민과 같은 교육을 둘러싼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은 자주 강조되어 왔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학부모가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관계를 통해 교사에 대해 형성하는 믿음으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3A206777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생

로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 진로 및 생활 상담, 학교 교육 활동 등을 교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한다(김대현, 최류미, 박화춘, 2018). 그동안 학교 내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신뢰자가 지닌 특성이 주목받아왔다. 예컨대 피신뢰자를 교사로 가정한다면, 교과 지도, 생활지도, 학급 운영 등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능력,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 일관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김대현, 최류미, 2016; 이숙정, 한정신, 2004;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등이 교사를 신뢰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 대상자가 지닌 특성뿐 아니라 신뢰 관계자들을 둘러싼 조직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쌍철(2013)은 교사와 교장, 교사와 교사 간 신뢰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별, 교직경력, 직위, 담임 여부 등 교사 수준의 변인과 함께 학교 규모, 학업성취 수준, 교육 정책 등의 학교 수준의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숙정(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급, 학교나 학급의 규모, 남녀공학 여부라는 학교 특성들이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신뢰 관계는 개인이 지닌 특성 외에도 학교급과 같은 학교조직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구인임을 알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까지는 지속적인 사회적 교환 경험, 제도적 여건들도 중요한데(이쌍철, 2013), 이러한 점에서 혁신학교라는 학교 운영 특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혁신학교는 시·도별로 명칭은 다르게 운영되지만, 공통적으로 학교구성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변화를 강조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 혁신학교에서는 학부모동아리, 학부모회, 아침맞이 등 학부모와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 그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면서 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이상철, 2018). 하지만 빈번한 사회적 접촉과 상호작용 경험이 자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조은재(2017)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학교 참여 과정에서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편견과 갈등을 경험하여 오히려 교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혁신학교 여부라는 학교 특성에 따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혁신학교 여부라는 학교 특성에 따른 교사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교육학 연구에서 학부모와 교사(학교)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논의가 많은 것에 비해 신뢰형성에 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적 맥락에서 학부모와 교사 관계의 이해를 돕고, 이들 간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학교급별(초,중,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학교 변인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새로운 공립학교의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혁신학교 정책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서울(서울형 혁신학교), 부산(다행복학교), 전남(무지개학교), 충북(행복씨앗학교) 등 지역별로 명칭과 그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 간 소통과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김용기, 2017).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경쟁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켜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김수경, 2011). 서근원(2014)는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교사, 학부모, 학생의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에 기반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활동에 관해 대화하고 학습하는 가운데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이다. 셋째, 인류가 남긴 지적 유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며 각자의 지식을 구성하는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학부모와의 관계 재설정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모를 부정적이고,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학교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를 담당하도록 했다면(김기수 외, 2019: 59), 최근에는 학부모를 교육공동체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혁신학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참여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다루는 연구물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2014; 조은재, 2017; 최윤진, 201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혁신학교 지정 이후,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소통을 독려하는 학내 분위기가 조성되어 학부모가 이에 응답하면서 교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을 주된 성과로 주목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이상철(2018)은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의 성과를 학부모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다행복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결과,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게 되며 이것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학교 참여 과정에서 학부모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나 의견 조정 방식의 대립을 겪으면서 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결과, 즉 서로를 잘 알게 되면서 유발되는 갈등이 신뢰를 저해시켰다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한다(조은재, 2017)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향하는 혁신학교는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 교육 활동 운영방식, 구성원 간 관계 면에서 기존의 학교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학교 특성은 구성원 간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숙정(2006)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에 주목했다. 학교 변인 중에 물리적 변인으로는 학교 소재지, 학교급, 학교·학급 규모, 학교 유형 등이 있으며, 과정적 변인에는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교·학급풍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이숙정(2006)은 교사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비공학보다는 남녀공학일수록 교사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학교구성원 간 신뢰를 형성하는데 피신뢰자의 특성 외에도 학교급, 혁신학교 여부 등의 학교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급, 혁신학교 여부라는 학교 특성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IRB 승인을 받았다. 자료를 표집하기 위하여 비확률 표집 방법의 하나인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진의 인맥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중에서 중간 조력자 15명을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링크를 전달하였다. 15명의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링크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을 거듭 반복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443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참여자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연구자에 응답한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443)

구분		빈도	백분율(%)
학부모 성별	여	404	91.20
	남	39	8.80
자녀의 성별	여	206	46.50
	남	237	53.50
학교 급별	초	202	45.60
	중	111	25.10
	고	130	29.30
혁신학교 여부	혁신	139	31.40
	비혁신	227	51.20
	모름	77	17.40
학교 소재지	서울	58	13.10
	인천	19	4.30
	부산	95	21.40
	울산	31	7.00
	대구	6	1.40
	광주	0	0.00
	대전	2	0.50
	세종	3	0.70
	제주도	1	0.20
	강원도	74	16.70
	경기도	108	24.40
	경상도	27	6.10
	전라도	3	0.70
	충청도	16	3.60
전체		443	100

2. 조사 도구

연구의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정보 질문에 응답하였다: 1) 본 연구에 참여의 동의를 묻는 질문, 2)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학교 소재지, 4) 혁신학교 여부. 다음으로는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형성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척도

이 연구에서는 김대현, 최류미, 박화춘(2018)이 중등학교 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를 신뢰하기 위한 원인과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결과가 되는 요인들에 대하여 '필요수준'과 '현재 수준'을 응답할 수 있도록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관계 및 담당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 문항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로 진술되어 있다. 사용된 측정 도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활용하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설문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74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와 구체적인 요인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표 2>와 같다.

<표 2>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척도

요인	문항의 예	Cronbach's α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10 문항)	교사는 평소에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일관적이다.	.973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7 문항)	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학교행사를 운영한다.	.950
신뢰 결과 요인 (3 문항)	나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821
전체 (20문항)		.974
모델적합지수	$\chi^2(167)=507.083$, SRMR=.029, TLI=.928, CFI=.937	

참고. 표에 제시된 모델 적합지수는 김대현, 최류미, 박화춘(2018)이 실시한 연구의 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적합지수임.

나. 확인적 요인 분석

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 척도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모델 지수가 어떠한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척도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χ^2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특히, χ^2검증법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null hypothesis)에 엄격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Fan, Sivo, 2007)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χ^2검정 통계량과 함께 적합도 판정 지수로 표준 잔차 평균

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비표준 적합 지수(Tucker-Lewis index: TLI), 비교 적합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함께 검증하였다. CFI의 값이 .90이상이면 모형적합정도가 좋은 것이며, TLI가 .90이상이면 우수한 모델 적합도이고 SRMR은 .04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이다(Bentler, 1990; Mulaik, 2010).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카이제곱(χ^2)값은, χ^2(253, n=202)=6964.505, p-value<.001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는 SRMR=.034, TLI=.912, CFI=.921로 나타나 초등학교 학부모로 이루어진 연구대상에게도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3>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교사 신뢰 척도 적합도 분석 결과(n=202)

χ^2(df)	SRMR	TLI	CFI
6964.505(253)	.034	.912	.921

3.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가.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의 신뢰: 학교급별 비교

연구문제 1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 신뢰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학교급별로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의 신뢰 정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로 일변량분석법(one-way ANOVA)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나.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의 신뢰 정도와 혁신학교의 여부

연구문제 2를 규명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사의 신뢰 정도를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 변량분석법(one-way ANOVA)을 위해서는 IBM SPSS 25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학교급별 비교 결과

가.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 기술통계

수집된 표본자료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전체 평균은 3.93이었고 표준편차는 0.92를 나타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M=4.06, SD=0.93)가 중학교 학부모(M=3.91, SD=0.89)와 고등학교 학부모(M=3.91, SD=0.9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의 신뢰 현황: 학교급별(n=44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3	3.93	0.92
학교급별	초	202	4.06	0.93
	중	111	3.91	0.89
	고	130	3.76	0.90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왜도의 절대값은 .87에서 1.21사이에 분포하였고, 첨도는 .07에서 1.25사이에 있어 학자들(Curran, West, &, Finch, 1996; 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이 제안한 기준치(왜도>2, 첨도>7)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표 5>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443)

잠재변인	관찰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의 신뢰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1	5	3.97	0.96	-.87	.40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1	5	3.75	1.08	-.67	-.29
	신뢰 결과 요인	1	5	4.23	0.86	-1.21	1.25
전체 (20문항)		1	5	3.93	0.92	-.71	-.07

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와 신뢰도를 Cronbach 알파계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87에서 .65 사이에 있었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계수는 .98에서 .82까지로 나타났다.

<표 6>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n=443)

변수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10문항)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7문항)	신뢰 결과 요인 (3문항)
신뢰 선행 조건(학생-교사)	(.98*)		
신뢰 선행 조건(학부모-교사)	.87	(.96*)	
신뢰 결과 요인	.65	.65	(.82*)

괄호 안의 숫자는 관찰변수들의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계수임.
*p < .05

나.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 학교급별 비교 분석결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 척도의 3개의 하위 요인, 신뢰 선행 조건(학생-교사), 신뢰 선행 조건(학부모-교사), 신뢰 결과 요인의 모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에 대한 신뢰의 학교급별 기술통계(n=44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최솟값	최댓값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초	202	4.10	0.95	0.07	3.97	4.24	1.00	5.00
	중	111	3.92	1.00	0.09	3.73	4.11	1.00	5.00
	고	130	3.81	0.91	0.08	3.65	3.96	1.00	5.00
	전체	443	3.97	0.96	0.05	3.88	4.06	1.00	5.00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초	202	3.89	1.12	0.08	3.73	4.04	1.00	5.00
	중	111	3.75	0.97	0.09	3.57	3.93	1.00	5.00
	고	130	3.56	1.07	0.09	3.37	3.74	1.00	5.00
	전체	443	3.75	1.08	0.05	3.65	3.86	1.00	5.00
신뢰 결과 요인	초	202	4.34	0.79	0.06	4.23	4.45	1.00	5.00
	중	111	4.23	0.82	0.08	4.08	4.39	1.00	5.00
	고	130	4.08	0.96	0.08	3.91	4.24	1.00	5.00
	전체	443	4.23	0.86	0.04	4.15	4.31	1.00	5.00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학교급별로 교사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의 신뢰 측정 도구의 3개의 하위 요인에 대하여 집단별로 분산이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Levene 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p>.05) 동일 분산이라고 볼 수 있었다. Levene의 값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분산의 동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신뢰 선행 조건(학생-교사)	.097	2	440	.77
신뢰 선행 조건(학부모-교사)	1.596	2	440	.88
신뢰 결과 요인	3.820	2	440	.02

신뢰 선행 조건(학생-교사), 신뢰 선행 조건(학부모-교사), 신뢰 결과 요인의 세 개의 요인 간에 F-검정(ANOVA)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 요인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뢰 선행 조건(학생-교사), F(2, 440)=4.046, p<.05, r=.13, 신뢰 선행 조건(학부모-교사), F(2, 440)=3.726, p<.05, r=.20, F(2, 440)=3.732, p<.05, r=.13. F-검정(ANOVA)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일원배치 분산분석(n=44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집단간	7.329	2	3.664	4.046	.01
	집단내	398.466	440	.906		
	전체	405.795	442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집단간	8.530	2	4.265	3.726	.02
	집단내	503.637	440	1.145		
	전체	512.167	442			
신뢰 결과 요인	집단간	5.405	2	2.702	3.732	.02
	집단내	318.624	440	.724		
	전체	324.029	442			

즉, 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의 신뢰 척도 세 개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중학교 학부모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들과 고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평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각 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체적이 차이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급별 집단 간 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의 신뢰 다중 비교(n=443)

종속변수	I	J	평균차이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초	중	.19	.11	.30	-.09	.46
		고	**.30***	.11	**.02**	.04	.55
	중	초	-.19	.11	.30	-.46	.09
		고	.11	.12	1.00	-.18	.41
	고	초	**-.30***	.11	**.02**	-.55	-.04
		중	-.11	.12	1.00	-.41	.18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초	중	.14	.13	.84	-.17	.44
		고	**.33***	.12	**.02**	.04	.62
	중	초	-.14	.13	.84	-.44	.17
		고	.19	.14	.50	-.14	.52
	고	초	**-.33***	.12	**.02**	-.62	-.04
		중	-.19	.14	.50	-.52	.14
신뢰 결과 요인	초	중	.11	.10	.86	-.13	.35
		고	**.26***	.10	**.02**	.03	.49
	중	초	-.11	.10	.86	-.35	.13
		고	.15	.11	.49	-.11	.42
	고	초	**-.26***	.10	**.02**	-.49	-.03
		중	-.15	.11	.48	-.42	.11

참고. *p<.05 이며 진한 글씨체로 표현됨. Bonferroni를 사용함.

다.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 혁신학교의 여부 결과

혁신학교의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에 대한 신뢰 현황을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혁신학교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39명이었고, 혁신학교가 아니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227명이었으며 나머지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혁신학교인지 아닌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모든 하위 요인에 있어서 혁신학교의 학부모가 일반학교의 학부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신뢰 선행 조건(학생-교사), $t(364)=5.476$, $p<0.05$; 신뢰 선행 조건(학부모-교사), $t(364)=5.407$, $p<0.05$; 신뢰 결과 요인, $t(364)=3.215$, $p<0.05$. 독립표본 t-검정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학부모가 바라본 교사에 대한 신뢰의 혁신학교 여부별 기술통계(n=443)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솟값	최댓값
						하한값	상한값		
전체	혁신 학교	139	4.31	.82	.07	4.1718	4.4476	1.00	5.00
	비 혁신 학교	227	3.77	.95	.06	3.6451	3.8941	1.00	5.00
유의도				$t(364)=5.543$, $p<.05$					
신뢰 선행 조건 (학생-교사)	혁신 학교	139	4.36	.84	.07	4.2208	4.5015	1.00	5.00
	비 혁신 학교	227	3.81	.99	.07	3.6814	3.9398	1.00	5.00
유의도				$t(364)=5.476$, $p<.05$					
신뢰 선행 조건 (학부모-교사)	혁신 학교	139	4.17	1.00	.08	4.0005	4.3366	1.00	5.00
	비 혁신 학교	227	3.54	1.13	.08	3.3896	3.6853	1.00	5.00
유의도				$t(364)=5.407$, $p<.05$					
신뢰 결과 요인	혁신 학교	139	4.47	.73	.06	4.3454	4.5898	1.00	5.00
	비 혁신 학교	227	4.17	.91	.06	4.0557	4.2938	1.00	5.00
유의도				$t(364)=3.215$,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교 변인에 따른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차이 정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으로 학교급, 혁신학교 여부를 연구의 주된 방향성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44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학교급별로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보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혁신학교의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부모가 바라보는 교사의 신뢰를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학부모들보다 더 높은 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를 형성하는 요인들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있다.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급과 교과담임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활동 또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활동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학교공동체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신뢰 관계 중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 관계를 학교급별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혁신학교 운영 여부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혁신학교 관련 연구(이상철, 2018)에서 살펴보았듯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학부모와 교사 간 사회적 경험과 소통의 기회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운영 방식이 구성원 간 신뢰형성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한 혁신학교 학부모들을 학교급별로 분리하지는 못했다. 또한 혁신학교는 각 지역 교육청마다 정책과 비전을 조금씩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에 참여한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결과를 다른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형성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른지를 학부모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학교의 학부모들을 일반학교 학부모들과 비교하여 교사에 대한 신뢰가 왜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혁신학교의 비전과 철학, 학교 운영방식, 교장의 리더십,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원 간 신뢰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수, 강대중, 김봉제, 김장중, 오재길(2019). **학부모와 공교육: 학부모 담론의 시작**. 경기: 교육과학사.

김대현, 최류미(2016). 초등학교 교사들의 동료에 대한 신뢰 형성의 근거와 결과. **교육혁신연구, 26**(3), 63-81.

김대현, 최류미, 박화춘(2018). 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척도 개발. **교육혁신연구, 28**(4), 73-99.

김수경(2011). 혁신학교 운영의 실태와 성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4), 145-168.

김용기(2017).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 및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CP 2017-02-08.

김우택, 김지희(2002). **한국 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서울: 소화.

서근원(2014). 질적연구 방법과 교육의 평등: 혁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3), 99-129.

서울형혁신학교네트워크(2014). **행복한 나는 혁신학교 학부모입니다.** 서울: 맘에드림.

유길한(2008). 우리나라 학교교육조직의 상호의존성, 갈등, 신뢰, 교육의 질 구조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6**(2), 105-132.

이상철(2018). 학부모 관점에서 바라본 부산다행복학교의 성과와 과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9), 593-603.

이쌍철(2013). 학교구성원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숙정, 한정신(2004). 교사신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8**(3), 23-39.

이숙정(2006). 학교변인과 학생들의 교사신뢰와의 관계: 학교급, 학교·학급규모, 남녀공학 유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4**(1), 171-194.

조은재(2017). 혁신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2), 25-41.

최윤진(2018). 혁신학교 학부모 동아리 참여 의의와 제약. **교육사회학연구, 28**(1), 99-140.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y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 272-299.

Fan, X., & Sivo, S. A. (2007). Sensitivity of fit indices to model misspecification and model typ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3), 509-529.

Mulaik, S. A. (2010). *Foundations of factor analysis (3rd ed.).* Boca Raton, FL: Chapman and Hall/CRC

· 접수일 2019년 3월 20일 / 수정일 1차 2019년 4월 28일, 수정일 2차 2019년 5월 8일 / 게재확정일 2019년 5월 17일

· 교신저자 : 최류미,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crm0718@naver.com

Abstract

Comparisons of Parents' Trust in Teachers for School Levels and School Types

Park, Hwachoon* · Kim, Daehyun** · Choi, Ryumi**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gree of parents' trust in teachers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for school leve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school types (Heoksin or non-Heoksin) as measured by the Parents' Trust in Teachers Scale. A total of 443 Korean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provided usabl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o analyze data.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trust in teachers depending on school types and levels. The lower the level of the school, combined with being a Heoksin school rather than a non-Heoksin school, enabled a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researcher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s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 trus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parents' trust in teachers, school factors, school level, Heoksin school in South Korea.